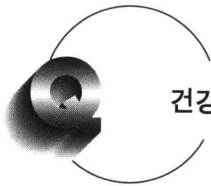


건강진단에 앞서 준비하여야 하는 것



건강진단을 하기에 앞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합니까?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나이, 직종, 유해 업무 유무, 과거의 건강상태에 따라 실시할 검사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진자들의 명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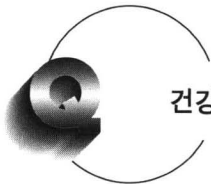
근로자는 교대근무를 하기도 하고 사업장 밖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도 빠짐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 일정을 조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검사항목에 따라서는 장소를 잘 마련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청력을 검사할 때는 시끄럽지 않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일반건강진단이든 특수건강진단이든 많은 검사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외부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검진할 때는 미리 긴밀한 연락하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진단은 보건관리자는 물론 사업장에서도 큰 행사이므로 계획된 대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지시할 것은 지시하며 필요한 인원을 지원 받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표와 체노기 등을 나누어 주었으면 그 배포 및 회수 방법을 정하여 바뀌거나 미비한 점이 없도록 합니다.

건강진단이 끝나면 행정기관에의 보고, 수진자 각자에게 통지하는 일, 필요한 사후조치 등을 생각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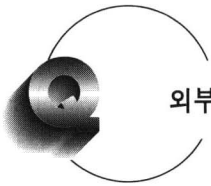
건강진단의 목적을 근로자에게 잘 이해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요.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진단에서 발견된 소견은 건강관리의 자료가 됩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이유는 대부분 “아무 이상을 느끼지 않아서”, “바빠서”입니다. 그러나 성인병은 대부분이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은 전혀 자각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병이 진행됩니다. 자각증상을 느껴 병원에 가는 수가 많은데 대개의 경우 때를 놓치게 됩니다.

건강은 개인에게 있어서나 사업장 모두에게 중요한 재산입니다. 한정된 검사 항목이지만 일년에 1회 건강을 확인한다는 것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소홀히 생각지 않게 이해시켜야 할 것입니다.



외부 의료기관에 검진을 의뢰하는 경우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진에 필요한 사전 준비, 당일 준비, 경과 통보 등을 합의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1) 수진자의 명단 작성, 개인표 준비, 개인의 검사항목 확인
- 2) 문진표, 개인표의 배포, 기입, 회수
- 3) 검진장소, 필요한 전원과 용량
- 4) 검진장소의 넓이, 조명, 난방방, 책상, 의자, 접수장소, 수진자 출입구
- 5) 체노할 장소
- 6) 결과보고의 양식, 2차 검진방법과 대응